



즉시 배포용: 2021년 2월 1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와 **BIDEN** 행정부, 예방 접종을 위한 공평한 접근 확대를 목표로 뉴욕주에 대규모 예방 접종소를 개설할 것을 발표

Cuomo 및 **Biden** 행정부,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백신을 배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접종소는 지원이 부족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함

접종소는 백신의 공평한 배포를 위한 국가 모델의 역할을 수행

매일 3,000명의 뉴욕 주민들을 접종할 수 있는 두 접종소는 브루클린의 매드거 에버스 대학(Medgar Evers College)과 퀸즈의 요크 대학교(York College)에 개설될 예정

뉴욕주와 바이든 행정부, 매일 1,000명의 뉴욕 주민들에게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뉴욕시 밖의 추가 접종소 확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코디네이터 Jeffrey Zients와 백악관 코로나19 건강 형평성 대책 본부(Health Equity Task Force) 의장 Marcella Nunez-Smith 박사와 합류하여 주지사의 요청에 따라 미국연방 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이 브루클린의 매드거 에버스 대학과 퀸즈의 요크 대학교에 두 개의 지역사회 기반 대규모 백신 접종소를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백신 접종소는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배포를 위한 국가 모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뉴욕시에 있는 이 두 개의 주요 대규모 백신 접종소는 8주 동안 매일 약 3,000명의 뉴욕 주민들에게 예방 접종을 실시하며, 브롱크스의 주 및 도시가 운영하는 양키 스타디움 접종소와 같이 해당 접종소가 위치한 자치구의 거주자만 예약이 가능합니다. 뉴욕주는 연방재난관리청 및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와 함께 뉴욕시 바깥의 추가 장소를 모색하여 백신의 형평성과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접근성 향상에 초점을 맞춘 세분화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며, 매일 1,000명의 뉴욕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방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접종소들은 코로나19로 불균형하게 영향을 받은 기존의 의료 시스템으로 인해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한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백신에 대한 의심과 예방 접종 비율이 주의 다른 지역보다 낮은 지역사회에서 백신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이 접종소는 뉴욕주와 Biden 행정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리더 및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사람들이 신뢰하는 환경에서 최대한 공정하고 공평하게 예방 접종을 실시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는 미국에 썰물을 만들었으며, 그 표면 아래에 숨어있는 모든 추악함과 구조적 인종 차별, 불의와 불균등이 노출되었습니다. 우리는 유색인종 계층이 가장 고통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처음부터 백신의 공정하고 공정한 분배를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두 개의 이 새로운 진료소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사회에 극적인 도움을 줄 것이고, 백신 접종을 위해 이미 우리가 현장에서 하고 있던 일에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Biden** 행정부의 협조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코디네이터인 Jeff Zient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Biden** 대통령은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접근이 어려운 지역사회들에 예방 접종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와 협력하여, 바이러스 억제에 대한 전투에 공평함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발표하는 지역사회 백신 접종소는 그 일이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Cuomo** 주지사와 여당 대표 **Schumer**, 뉴욕 의회는 이러한 접종소를 실제로 설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사람들이 잘 알고 신뢰하는 장소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전국에 더 많은 접종소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백악관 COVID-19 형평성 대책 본부 의장 Marcella Nunez-Smith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할 새로운 백신 접종소를 통해 백신이 가장 필요한 지역사회에 직접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원이 부족하고 접근이 어려운 지역사회에 약국과 지역사회 보건소, 이동 진료소를 포함해 예방 접종을 위한 종합적인 형평성 전략을 수행하고 있으며, 예방 접종을 주저하는 지역사회들의 백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할 것입니다."

연방재난관리청의 2 지역 책임자 David Maurstad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우리의 뉴욕주 파트너들과 지속해서 협력했습니다. 백신 배포는 우리가 마주한 전투의 다음 단계입니다. 우리는 백신을 원하는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공평하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주를 지원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와 협력하여 주 전역의 다른 지역사회들을 지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접종 장소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19는 이 나라에 크나큰 피해를 주었지만, 흑인과 라틴계 사람들이 백인들보다 높은 비율로 사망하면서 특히 가난한 지역사회와 유색 인종 지역사회들은 이 바이러스에 의해 황폐화되었습니다. 백신 배포가 시작된 이래로, 특히 흑인 지역사회에서 [백신에 대한 불신](#)과 관련된 우려스러운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수의 필수 근로자가 유색인종 지역사회 출신이기 때문에, 이 뉴욕 주민들은 그들 직업의 특성상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큼니다. 이로 인해 백신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고 접근성을 높여 이러한 지역사회에서 바로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및 기타 연방 기관의 지원과 더불어, 이러한 진료소는 연방 의료진 및 비의료진, 계약업체가 주 방위군, 뉴욕주, 현지의 리더 및 지역사회 기반 단체들과 함께 설립 및 운영될 예정입니다. 각 접종소의 위치는 해당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조정될 것입니다.

접종소는 현재 설립이 진행 중입니다. 일정, 개관일 및 운영 시간은 며칠 내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내셔널 액션 네트워크(National Action Network)의 설립자이자 회장인 **Al Sharpton**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Biden 대통령과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쪽에 도움이 필요한지 아는 사람이 백악관에 있고, 그리고 백신의 형평성을 위해 싸우고 있는 파트너가 뉴욕에 있다는 건 성공의 비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이죠."

내셔널 어번 리그(National Urban League) 회장 겸 최고경영자이자 백신 형평성 대책 본부 공동 의장인 **Marc H. Moria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인종차별이 흑인 계층에 이 시스템에 대한 깊은 불신을 심어왔습니다. Cuomo 주지사와 Biden 행정부는 인종차별과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헌신에 맞추어 자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공중 보건을 정치에 넘기는 리더십과 함께 일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팬데믹을 떨쳐낼 것입니다."

전미 흑인 지위 향상 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 NAACP) 회장 겸 최고경영자인 **Derrick Johnso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흑인 지역사회가 이 팬데믹으로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동안 Cuomo 주지사가 구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는 점에 저희 전미 흑인 지위 향상 협회는 고무되어 있습니다. 뉴욕 공무원들과 현 행정부는 지금 이 순간 진정한 리더십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 전역의 주에 코로나19 근절을 위해 협력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를 분명히 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 과정의 초창기부터 코로나19 백신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2020년 후반에 주지사는 **Rossana Rosado** 국무장관, **Marc Morial** 내셔널 어번 리그(National Urban League) 대표 겸 최고경영자, **Pat Wang** 헬스퍼스트(Healthfirst) 대표 겸 최고경영자 등이 주도하는 뉴욕 백신 형평성 대책 위원회(New York's Vaccine Equity Task Force)의 출범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대책 위원회는 설립 이후부터 계속 예방 접종을 장벽을 허물고 뉴욕주 전역에 공정하게 백신 접종을 실시함으로써 의료 서비스 혜택에 취약한 지역사회가 소외당하지 않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에 뉴욕은 뉴욕시, 뉴욕 양키스(New York Yankees), SOMOS 커뮤니티 케어(SOMOS Community Care) 및 뉴욕 주 방위군과 협력하여 [양키 스타디움의 대규모 백신 접종소](#) 설립을 주도했는데, 이는 특히 브롱크스의 주민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브롱크스는 뉴욕시에서 가장 높은 코로나19 양성률을 보일 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구가 '헬스케어 사막'으로 불릴 정도로 지원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접종소의 운영 첫 주에 브롱크스에 거주하는 접종 대상자를 위한 15,000건의 접종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뉴욕은 전통적으로 의료 지원이 부족한 교회, 커뮤니티 센터 및 공공 주택 단지에 70개 이상의 임시 지역사회 기반 '팝업' 백신 접종소를 설립했습니다. 1월 15일 이후, 약 3만 명의 뉴욕 주민들이 이 지역사회 기반 팝업 진료소에서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료소는 첫 번째 백신 접종 이후 3주 후 두 번째 접종을 위해 다시 개관됩니다.

뉴욕은 7,600명이 넘는 고령자가 입주해있는 33개의 뉴욕시 주택청(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 NYCHA)의 고령자 주택 개발(Senior Housing Development) 단지 전부에 팝업 접종소를 계속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Cuomo 주지사가 추진하는 백신 형평성 대책 위원회(Vaccine Equity Task Force)를 통해 이러한 접종소 설치에 동의한 300곳 이상의 교회와 문화 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공공 주거 복합단지에 팝업 접종소가 계속 설치될 예정입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